

“흔백이나마 고국 땅에 묻고 싶어...”

강진 이형문씨, 피지 이민 체험 책 펴내



“이민 갔다가 나이가 70에 접어들니 내 흔백이나마 고국 땅에 묻고 싶습니다”

남태평양 적도상의 조그만 섬나라 피지에서 강진으로 역이민을 온 이형문(72)씨.

이씨는 최근 13년 이민생활 애환 등 체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 집 ‘흔백을 남긴 유산(遺産)’(도서출판 유나미디어 간)을 펴냈다.

당초 이 책은 평소 모아두었던 원고를 읽어버리고 기억을 더듬어 지난해 초판을 찍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만 나누어 주었으나 재판요청과 독자가들의 도움으로 이번에 재판(再版)을 찍게 됐다.

이 씨는 이 책에서 초기 이민생활에서 겪은 시행착오, 조국을 떠나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 등 이민생활에서의 체험담을 흥미진진하게 써 내려갔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전남공동모금회 ‘희망 2008 나눔캠페인’ 개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송영수)는 21일 순천대에서 ‘희망 2008 전라남도 나눔캠페인 추진대회’를 개최했다.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사랑의 연탄 1천장 전달



새마을운동 광주남구지회(회장 박경준)는 21일 남구 일원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형 연탄’ 행사를 개최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연탄 1천장을 전달했다.

광주 제일로타리클럽, 환경 보전 캠페인



광주제일로타리클럽(회장 이지섭)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 일대에서 ‘우리 강산을 살립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환경보전 활동을 벌였다.

■ 54년째 모임 갖는 광산 ‘평동초등학교 15회 동창회’

“코흘리개들이 어느덧 일흔이젠 가장 진실한 친구죠”

50년 전 보자기 책가방인 일명 ‘책보’를 허리 에 차고 검정고무신을 신고 논두렁을 넘던 아이들이 깊게 패인 주름과 흰머리가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어서 모임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한 식당에서 평동초등학교 15회 졸업생 동창회가 열렸다. 회원은 모두 40명. 54년째 매년 봄·가을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108번째인 이번 모임에는 13명이 함께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았고, 5학년 때는 6·25 전쟁 때문에 학교가 사라져 나무 그늘 밑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다. 1951년 7월에 있었던 졸업식조차도 운동장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서 치렀을 정도로 사연 많은 이들도. 그때야 나씨는 “그때는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을 때”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70을 나타내는 말)을 훌쩍 넘긴 ‘할배’가 됐지만 모임에서만큼은 타임머신을 타고 50년을 거슬러 가 옛날의 코흘리개 개구쟁이로 변한다.

당시 반장이었던 나중휘(74·광주시 광산구 연산동)씨가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착실하고 점잖은 사람들”이라며 말문을 열자, 다른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며 “최고 말쑥꾼은 바로 나 씨였다”며 입을 모았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나씨는 학교 앞 ‘학 교방’(구멍가게)에서 주인 할아버지가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비과’(우유로 만든 옛날 과자)를 한 주먹씩 몰래 가져와 친구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고, 선생님을 골탕먹이기 위해 냇가에 빠트리기도 했었다.

그때야 나씨는 “그때는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을 때”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평동초등학교 15회 졸업생 동창모임이 지난 20일 광주시 광산구 한 식당에서 열렸다. 회원들은 나이를 잊은 채 꿈 많은 초등학교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꽃을 피웠다.

당시 냇가에 빠졌던 김중준 선생님은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어린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며 늙어가는 제자들과 소식을 함께 나누고 있다.

고향 친구를 만나는 일은 문계구를 파듯 설렘으로 부풀지만 몇 년 전부터는 서로 안부를 챙기는 일이 더 많아져 조금은 쓸쓸하다.

황남주(72·광산구)씨는 “모임에 나오는 사람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

며 “올해도 돌아 보겠다”고 심란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송봉근(71·광산구 평동)씨는 “누가 아프다고 하면 함께 병문안도 가고, 이렇게 만나 회포를 풀며 서로 의지하고 있다”면서 “눈에 비친 모습은 백발의 노인이지만 우리들 마음에 비친 모습은 어릴 적 순수했던 그 모습 그대로”라며 활짝 웃었다.

/글·사진=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화순 출신 재미동포 ‘이민자 권익옹호 봉사상’

‘미교협’ 이은숙 사무국장, 한인 노인 보조금 복원 등 앞장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미교협)의 이은숙(여·40) 사무국장이 내달 6일 워싱턴 DC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전국이민법률센터(NILC)가 주는 제1회 이민자 권익옹호 봉사상을 받는다.

NILC는 미 전역 이민자들의 노동권과 교육, 정부 혜택과 관련한 법과 정책을 분석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전문단체로, 올해 이상을 처음 제정하면서 미교협과 이은숙 사무국장에게 영예를 안겼다.

1994년 창설된 미교협은 반 이민 돌풍으로 빼앗겼던 한인 노인 등 저소득 영주권자의 보조금을 복원하는 데 앞

장섰고, 불법체류 학생들을 위한 ‘드림법안’ 통과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그는 21일 “미교협은 1996년 이민자 복지 시각 반대 활동 이래 현재 인도주의적 이민정책으로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이민자 권익 옹호 활동을 펼쳐왔는데 이를 NILC가 인정해 준 것”이라며 “한인단체가 주류 사회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에 의해 인정받은 첫 사례”라고 말했다.

화순 출신인 이 국장은 여섯살 때 캐나다로 이민했고 1993년 미국 시카고로 재이주한 뒤 미교협에 들어가 활약하고 있으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인 시카고 ‘여성 하라인’의 사무국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바다로 갤러리로 해외로...’

나만의 결혼식 꿈꾸는 스타들

오는 12월28일 결혼하는 탤런트 이승연이 바닷가 결혼식을 준비 중이다. 서울도, 호텔예식장도 아니라 신선함을 안겨준다.

이승연은 “찍어낸 듯 똑같은 결혼식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장소를 몰색하던 중 해가 뜨고 지는 바닷가가 좋을 것 같아 함께 쪽에서 하기로 했다. 시간이 되는 하객은 1박2일간 함께 머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예식장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결혼식을 벗어나 ‘나만의 결혼식’을 기획하는 연예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승연〉 〈문소리〉 〈김구성〉

문소리의 경우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준한 감독과 경기도 남양주의 한 갤러리에서 화족을 밝혔고 지난 5월 사립 한상구씨와 결혼한 심혜진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이어 자신의 전원주택 정원에서 피로연을 열었다.

지난해 1월 동료 배우 강민아와 결혼한 김구성씨는 해외에서 크루즈 결혼식을 올렸다.

광주과기원 노용영 박사

200나노 트랜지스터 개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 노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한 이 연구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18일자 온라인에 게재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출신 노용영 박사가 용액상태의 금 나노 입자 크와 유기물 반도체에 잉크젯 기법을 적용해 200 나노의 채널길이를 갖는

전남 노진호·이영신 등 줄줄이 금메달

국제기능올림픽 종합우승 견인차



전남지역 전문체고교 학생들이 세계 기능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제39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가 15번째 종합우승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번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지난 15~21일까지 일본 시즈오카현 그랜십 경기장에서 세계 48개국에서 선수 826여명이 참석해 기량을 겨뤘다.

이가운데 한국의 47종종 선수 중 통합제조에 노진호(사진 왼쪽·주안중고 3년·기계과) 학생이 금메달, 배관에 현대중공업 소속 이영신(나주공고 기계과 졸업)이 금메달, 자동차도장에 기아자동차 소속 공대식(여수공고 기계과 졸업)동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금메달 11개를 획득해 종합우승을 하는데 한 몫을 톡톡히 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주안중고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혼연일

체가 되어 체계적인 기능교육을 실시한 모범적인 학교로서 지도교사인 정영운(사진 오른쪽) 교사도 또한 지난 제3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기능 교육의 영재 발굴 및 육성에 공헌했다.

한편, 메달 수상 선수에게는 시상금, 훈장, 병역특례, 연금, 장학금, 자격증, 창업자금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조익준씨 장남 상원(서울유동 대표)군 서영동(전 전남도 축정과장)씨 차녀 은성(SCA 서울사무소 교육담당간호사)양=25일(일) 오후 3시 서울 웨딩의 전당 2층. 피로연 23일(금) 오후 5시 상무리초컨벤션 2층.
▲김성근(광주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씨 막내 제군(한국과학기술원)군 박현성씨 막내 정희양=24일(토) 오후 1시10분 그랑시아웨딩홀 1층 다이아몬드홀.
▲신인재(광주 동부경찰서 교통과)씨 장남 영원(삼성전자 연구원)군 김재희(우정해례미분 부사장)씨 장녀 주영(해통초고 교사)양=25일(일) 낮 12시20분 상록웨딩홀 3층 무궁화홀.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 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접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 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

- 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 =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전남대학교 사학과 동문회'82

- 학번이 주선하는 선후배 만남의 자리=24일(토) 오후 6시 전남대 응봉문화관 1층 응지원. 016-459-2852
▲담양 고서중 제 6회(회장 최용호) 단합 체육대회 및 송년모임=24일(토) 오후 1시 고서 전방군체 운동장. 011-616-0304
▲하남초교 39회 동창회 정기총회=24일(토) 오후 6시 우리 가든.
▲동신대 총동창회 창립총회=24일(토)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연회장. 061-330-3017
▲북상중 제 26회 동창회(회장 이형선) 월례회=26일(월) 오후 7시 영미오리탕. 527-0249

중진회

- ▲전주씨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이화회(회장 이보희) 월례회=22일(목) 오전 11시30분 지원 회의실.

- ▲전남대학교 사학과 동문회'82

225-5631

향우회

- ▲재광 영광군 향우회 임시총회=24일(토) 오전 10시30분 무등산 증심사 입구 주차장. 010-2288-5119
▲재광 순천 중·고 테니스회 월례대회=24(토) 오후 3시 동신고 테니스 코트. 016-652-8040, 016-9877-3972
▲이천염씨 백수연=23일(금) 오후 5시30분 에벌루션웨딩홀 컨벤션. 018-613-0840

모임

-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자 모집=월 3~4회 노인 돌보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412-3201
▲(사)전남장애인재활협회 직원

모집=만 20세 이상 여성 사무·경리 직 모집. 524-1860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무료) 모집=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권·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가치 및 환급성 분석 등. 문의 011-607-4614

▲유급지원병(전문병) 모집=중졸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 인원 1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이 기간중 월 120만원·지원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문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 230-4246~9

▲이천염씨 백수연=23일(금) 오후 5시30분 에벌루션웨딩홀 컨벤션. 018-613-0840

금호장례식장 T.062-227-4000 (합동) 고졸력/저비용/대형주차장 장성껏 섬기겠습니다. 승정장례식장 T.062-941-4400 (합동)

부음

- ▲정재현씨 별세 응인(한나라당 목포시당 부위원장)씨 부친상 조대욱(대한시멘트㈜ 경영지원팀장)씨 부부상=발인 23일(금) 목포 중앙병원 장례식장. 061-280-3000
▲박병천(진도 셋김군 에너지보유자·대불대 석좌교수)씨 별세 환영(부산대 국악과 교수)씨 부친상=발인 23일(금)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02-3010-2230
▲서명엽씨 별세 이태운(광주 고법원장)·태운(전 광양 서초교 교장)씨 모친상 전효숙(전 현법재판소 재판관)씨 시모상=발인 22일(목) 광양 가야장례식장 1호실. 061-763-4444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정계공원 가깝습니다 특별분양 062-222-0201